

### Ⅲ. 지역경제일지 (2023.8.1~ 8.31일)

▷ 8.10일 : 인천,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 체결

- 인천시는 금융감독원,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  - 금융권과 지자체가 협력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로 ESG컨설팅 및 공급망ESG 실사 대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,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해 금리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 확대
  - 중소기업은 공급망 규제 대응 등에 따른 영업 충격 최소화, 금융감독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 여신 관련 잠재부실을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

▷ 8.12일 : 인천항,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

-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중카페리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
  - 2020년 6월 송도국제도시에 개장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이번 여객 운송으로 첫 여객 방문
  - 중국 당국이 지난 1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하여 한중카페리 여객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
- 한중카페리 인천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102만명으로 내년에는 여객 운송 재개와 단체여행 허용 등으로 펜트업 수요로 100만명 이상 이용할 것으로 전망
  - 인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카페리는 총 9개 노선으로, 나머지 카페리도 순차적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

▷ 8.17일 : 인천, 수출 감소로 전환

- 올해 7월 인천 수출은 43억8천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.3% 감소
- 인천 수출은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37.3% 감소, 바이오시밀러 및 백신 수출 감소로 농약 및 의약품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9.7% 감소

▷ 8.24일 : 인천·경기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수·매출액 증가율 전국 최고

- 2021년 인천 중소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은 전년대비 4.9% 증가,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3.8% 증가하여 경기지역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
  - 중소벤처기업부 '2021년 기준 중소기업·소상공인 기본통계' 편제 결과, 인천·경기지역의 중소기업 수·종사자 수·매출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
  - 인천지역 시·군·구별로는 인천 서구가 대규모 주택개발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가장 많은 중소기업 수(7만7천959개)와 매출액(41조5천463억원), 남동구가 종사자 수(23만2천696명)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